**강물**

‘강의’를 읽고

32184381 간호학과 조준호

내가 신영복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해 수능공부를 하면서였다. 모의고사 지문으로 신영복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철산리의 강과 바다’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 지문을 설명해 주실 때 덧붙여 해주셨던 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감옥에 들어가 20년간 옥살이를 한 작가라는 그 특이한 배경은 잊기는 쉽지가 않다. 놀라웠던 점은 그렇게 격동의 시기를 살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겸손한 서술이었다. ‘~합니다.’로 끝나는 경어체를 사용하는 책이 애초에 너무나 드물 뿐만 아니라 그 경어체에 어울리는 따뜻한 생각을 풀어내는 책은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지도 모른다. ‘철산리 강과 바다’의 경우에는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간단한 내용이며 한자들이 많이 활용되지 않았고 일상에서 우리들이 자주 생각하던 것들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의’를 읽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과거 동양 고전을 다루는 글로 그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기반을 얘기하는 것에 중점을 둔 책으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서론부터 어려운 내용의 철학담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는 것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부족한 독해실력을 한탄하며 책 전체 내용의 이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관심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요’하는 읽기위한 읽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양 고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을 정리한 ‘논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교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공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지금까지도 폭넓게 읽히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에서는 동양 고전의 가치를 찾으려 하고 있고 동양적 관계론을 그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 ‘논어’역시 춘추전국시대의 사상으로서 그에 충분히 응하고 있다. 즉 옳은 사회, 사람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논하는 관계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공자의 사상은 흔히 법치의 반대적 개념으로 덕치라고 일컬어 진다. 형벌로 다스리는 법치와 반대로 예로서 다스리는 덕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도 있을 것 같다. 여러 구절이 소개되며, 각 구절 모두 충분히 의미가 있고 생각을 더할 가치가 느껴졌다. 구절을 읽고 작가님의 해설을 천천히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 경험들을 떠올려 생각을 덧붙이고 다듬어가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옛 것과 새로운 것’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온고지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해석하여 얕게 이해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무겁게 있게 이해할 수 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경우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미 지나간 물을 과거로, 바로 앞의 물을 현재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미래로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나는 그러한 방식을 기반으로 시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작가님이 얘기하는 시간은 다르다. 애초에 시간을 우리와 동떨어진 채 혼자만 흘러가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양의 과도한 객관화가 우리의 사고에 깊이 자리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시간은 우리와 함께 흐른다. 우리는 시간과 분리된 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시간과 하나되어 흘러가는 존재여야 한다. 시간의 일부로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과 하나되어 강물이 된다면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아예 반대로 뒤바뀐다. 우리의 과거는 흘러간 강물이 아니라 흘러 내려왔던 상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하류와 넓은 바다가 될 것이다. 이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다. 전자인 관찰되는 입장의 강물의 경우, 지나간 물은 더 이상 현재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앞으로 내려올 물 역시 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하나의 강물이 아닌 단절된 강물인 것이다. 하지만 후자인 스스로 흐르는 강물의 경우, 상류를 타고 내려오며 스쳤던 돌과 풀잎을 기억할 것이며 점점 넓어지는 강물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하류와 바다를 내심 기대해볼 수 있다. 모두 이어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강물로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래를 편애하는 우리들에게 지나간 과거의 경험 또한 우리와 함께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과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소중한 과거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현재를 살게 하고 그 현재가 가져다 줄 아름다운 미래를 조망하게 한다.

처음 이 시간에 대한 서술을 읽었을 때 나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틀에 박힌 사고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으로서 관점의 전환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며 그 틀을 허물어 보았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눈을 돌려 내려온 상류를 바라보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려 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강물인 나를 인식하며 이 모두가 이어져 있음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강물이 되어서 나를 이루는 수많은 물 입자와 함께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유연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상상하며 느꼈던 기분 좋은 일체감을 다른 이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생각에 잠겼다. 아름다움과 그 치우침에 대해 인간관계의 회복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외모와 사람사이의 공감의 비중을 두고 고민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공존과 평화를 얘기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북한과의 공생관계를 떠올릴 수 밖에 없었으며 백성의 신뢰를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모두를 하나로 이끌었던 촛불집회를 생각하게 하였다. ‘논어’의 가치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미묘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과 우리가 경험할 많은 들에 대해 언급하며 진정으로 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논어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까지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독해능력이 안타깝다. 동양 고전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까마득한 것인 지 실감하며 논어와 더불어 책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내가 읽었던 여러 책들도 작가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가 궁금해 진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과연 내가 논어를 집어 들고 읽는다 했을지라도 내가 온고지신의 구절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독서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책을 볼때마다 높은 산 하나를 보는 느낌을 받는 것이 조금은 한스럽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가 ‘강의’를 읽고 좌절한 과거를 지나 현재를 흐르고 있지만 내가 마주할 바다에서는 ‘강의’를 받아들이는 더 넓은 존재가 되어 있으려 한다. 다시한번 힘을 내어 부단히 흐르려 한다.